

#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임강사 문혁준

School of Human Ec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Hyukjun Moon

###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notion that supportive and harsh parenting might be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 sample of 421 two-parent families, each of which included a kindergartener.

The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the group of fathers and the group of mothers. Descriptive analysis, cronbach's  $\alpha$ , correlations, and t-tests were used to examine research question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relation to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Mothers perceived their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more supportive than did fathers.
2. Parents' supportive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overreactivity and verbosity of current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3. Parents' harsh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was positively related to in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at present.
4. Fathers who perceived their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as more supportive exhibited less overreactive and less verbose disciplinary practices while fathers who perceived their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as more harsh exhibited more overreactive disciplinary practices at present.
5. Mothers who perceived their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as more supportive exhibited less verbose disciplinary practices while mothers who perceived their disciplinary experience in childhood as more harsh exhibited more ineffective disciplinary practices(including more overreactivity) at present.

## I. 서론

부모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각 가정이 속한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체계나 행동을 습득하도록 자녀를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특히 영유아기에 형성된 공격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한 발달적 특성이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Caspi, Elder, & Bem, 1987) 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훈육을 통하여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부적, 강압적, 반사회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거나 긍정적인 격려와 훈육기술을 사용하는데 미숙한 부모는 부정적인 아동의 행동에 대한 귀결(sequences)을 요구하는 훈육 상황에 더 많이 접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귀결은 불순종적인 아동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요구하는 행동의 반대되는 행동에 그들의 자녀를 무의식적으로 습관화시킨다는(Capaldi & Patterson, 1991; Patterson & Capaldi, 1991)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이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위험성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0년 동안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훈육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적 측면들에 대해 강조되어 왔다. 즉 가혹하고 학대적인 부모 훈육방법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학업 실패, 교우와의 원만치 못한 관계, 약물 복용 등 발달상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Patterson et al., 1989), 부모의 훈육방법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방임적인 경우와 공격적 행동과 분노 등을 표현하거나 또는 자녀를 모욕하는 등의 과잉반응적인 훈육방법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Patterson, 1976). 또한 부모의 장황한 훈계는 아동의 관심을 문제행동과 관련된 주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Arnold et al., 1993). 한편, 지원적인 부모 훈육방법 즉 온정적, 반응적, 조화적 그리고 빈번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친구에게 덜 공격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어 또래관계에서 인기아로 지목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었다(Mize & Pettit, 1997; Mussen et al., 198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행하는 일정한 양육행동 또는 훈육방법에 내재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로써 최근 연구 동향은 부모 훈육방법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 부모 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주요 요인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세대간 부모 훈육방법 전이는 아동기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한 훈육방법이 성인이 되어 부모로써 자녀를 훈육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가정한 변인이다(Belsky, 1984). 이 가설은 몇몇 선행 연구에서 자녀 학대 또는 신체적 처벌과 같은 부모의 훈육방식에 적용시켜 설명되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증거들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가혹한 처벌 여부가 성장 후 학대적인 자녀양육태도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기된 연구 보고가 있다(Steinmetz, 1977). 또한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산하고 2세된 자녀를 둔 어머니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노에 차 있으며, 처벌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는 출산시 남편 또는 동반자로부터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었거나 또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거부된 기억이 있었다고 밝혔으며(Crockenberg, 1987), 아동기에 부모가 거부적이고 현재 배우자의 지원정도가 적은 어머니의 경우 유아에게 가장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lsky et al., 1989).

세대간 전이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 역할 수행의 세대간 연속성을 강화와 모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Bandura, 1973, 1983; Jorgenson, 1985; Whiting & Whiting, 1975). 즉, 모델링과 모방을 통하여 아동들은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 패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정서적 반응까지도 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Jorgenson, 1985). 이 관점에

서 부모의 비효율적인 훈육방법과 아동 발달 경로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격발적이고, 신경질적이며, 위협적인 훈육방법은 자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며, 이러한 공격적인 인간관계의 형태는 가족구성원내에서 시작하여 학교 동료 더 나아가 학생-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Patterson, 1982; Patterson, et al., 1989). 또한 부모의 신체적인 체벌은 자녀에게 가족관계에서 폭력이 유용한 책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연결되며(Huesmann et al., 1984; Straus et al., 1980). 이러한 공격성은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엄격한 신체적 훈육 및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육태도 및 가치체계로 발전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Simons et al., 1991).

실제 세대간 훈육방법의 전이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합한 훈육방법과 긍정적인 강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훈육하였으며(Laub & Sampson, 1988).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가혹한 훈육방법을 경험한 어머니는 현재 그들 자녀에게도 가혹한 양육태도를 보였다(Simons et al., 1991). 아울러 학대받은 자녀가 폭력을 학습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O'Leary & Curley, 1986;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Kalmus, 1984) 제시되었다. 한편,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각되는 성인의 경우 부모로서 자녀와 상호작용시 더 정서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Whitbeck et al., 1992; Crowell & Feldman, 1988; Grossman et al., 1988)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부모 양육방식의 전이적인 결과로써 파생되는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인기 대인관계와 성격적 특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빈번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적대적이고 통제적일 경우 자녀의 성격은 불안정하게 형성되었으며, 이런 성격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관계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Elder et al., 1984). 예를 들면, 부적합한 부모훈육방법은 성장 후 남아가 배우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apaldi & Clark, 1998), 이러한 세대간 전이된 공격성은 가정폭력의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Telch & Lindquist, 1984; Carroll, 1977; Levinson, 1989). 또한 아동기 부모-자식간의 경험은 성인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친밀감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즉 아동기동안 부모로부터 경험한 돌봄의 정도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아동기 동안의 부모 과보호는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배우자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장상렬·이종범, 1995).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여의 부족은 아동의 외로움과 관계되어 세대간 전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Lobdell & Perlman, 1986). 아울러 거부·위협적인 양육태도(Lyons-Ruth et al., 1984; Whitbeck et al., 1991), 부모의 낮은 수준의 돌봄과 강한 정도의 과잉반응(Parker, 1981)과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인 양육경험은 성인기의 우울증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Amato, 1991).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간발달특성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아동기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아동기 경험과 관련 지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훈육방법을 지원적 측면과 처벌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현재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용하는 훈육방법을 세부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더 나아가, 생활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인 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모의 교육 정도를 아동기 훈육 경험과 관련 지어 살펴본 연구 또한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점에서 아동에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으며(Phares, 1996), 특히 과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훈

육방법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가 차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 훈육방법의 차이 즉 남이는 아버지의 가혹한 훈육방법에 더 반응적인 반면 여아는 어머니의 훈육방법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Straus et al., 1980)를 근거해 볼 때 부모훈육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고찰하는(Straus et al., 1980)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자녀훈육방법의 사용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Hart, 1994; Holden & Zambarano, 1992)는 간간히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원인 분석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훈육방법이 세대간에 전이 되는지 그리고 부(父)와 모(母)는 아동기 훈육경험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며, 아동기 훈육경험이 성인기에 이르러 사용하는 자녀훈육방법과 부모의 교육정도 및 소득수준과도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하나인 세대간 전이의 중요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차별적인 훈육방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세대간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며, 장기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녀훈육방법의 측면에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시켜 부모 교육 참여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기 훈육경험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아버지의 아동기 훈육경험과 현재 자녀훈육방법과는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아동기 훈육경험과 현재 자녀훈육방법과는 관계가 있는가?
4.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라 현재 부모의 자녀훈육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5.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라 현재 부모의 소득수준

과 교육성취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방법을 동시에 비교분석하기 위해 양친부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22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임의로 선정한 부산 시내 중류층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4곳을 통해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73.1%, 40대가 26.4%, 50대가 0.5%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0.9%, 30대 91.8%, 40대 7.3%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국졸 0.5%, 중졸 1.0%, 고졸 31.4%,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3.4%, 대졸 43.7%, 대학원졸 10.0% 이었으며, 어머니는 국졸, 0.4%, 중졸, 1.4%, 고졸 45.9%,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9.5%, 대졸 30.1%, 대학원졸 2.7%이었다. 직업분포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55.9%,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77.3%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299만원 사이에 75%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아동기 훈육경험

부모의 아동기 훈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먼저 Simons, Beaman, Conger와 Chao(1992)에 의해 개발된 지원적인 훈육 도구는 총 7문항의 5점 척도이며, 부모-자녀와의 대화 정도, 자녀 의사 존중 여부, 부모의 감정 전달 정도 등을 질문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7~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훈육 경험이 더 지원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또한 차별적인 훈육도구는 Straus, Gelles와

Steinmetz(198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총 4문항의 5점 척도이며, 소리지르기, 엉덩이 때리기, 뺨 때리기, 밀치기, 또는 막대기 또는 핵대 등을 사용하는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훈육경험이 더 처벌적이었음을 뜻한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2) 자녀훈육방법

부모의 자녀훈육방법은 Arnold, Leary, Wolff와 Acker(1991)의 Parenting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1문항의 5점 척도로써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사용의 상황적 표현성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1~105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 문항들의 예를 보면 비엄격성에서는 '아이에게 "안돼" 라고 말하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 과잉반응성에서는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올라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심하게 나무란다', 언어사용의 상황적 표현성에서는 '아이에게 길게 꾸짖는다' 등이다. 각 하위영역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방임성  $\alpha=.67$ , 과잉반응성  $\alpha=.74$ ,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alpha=.66$ 이었으며, 21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2.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부모용 질문지 250부(아버지용 질문지 250부와 어머니용 질문지 250부)를 각 기관의 교사를 통해 귀가시 아동에게 배부하였으며, 약 2주간에 걸쳐 회수되지 않은 질문지는 부모에게 재확인 전화를 통하여 총 235부(아버지용 질문지 235부와 어머니용 질문지 235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무응답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측

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은 아버지 집단과 어머니 집단을 분리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와 3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4의 분석을 위하여 부모의 아동기 지원적인 훈육 평균점수와 처벌적인 훈육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上, 下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5는 부모의 가정소득과 교육수준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는  $p<.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III. 결 과

1. 부모의 자녀훈육방법

부모의 아동기 훈육경험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1), 지원적인 훈육경험에 있어 어머니의 평균값( $M=23.42$ ,  $SD=5.83$ )이 아버지의 평균값( $M=21.62$ ,  $SD=5.16$ )보다 높게 나타났다( $t=-3.85$ ,  $p<.001$ ). 이는 아동기 훈육경험에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지원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한편 처벌적인 훈육경험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기 훈육경험과 자녀 훈육방법과의 상관

먼저 아동기 훈육경험과 아버지 훈육방법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지원적인 훈육경험과 아버지의 자녀훈

<표 1> 부(父)와 모(母)의 아동기 훈육경험

훈육방법	부(父)M(SD)	모(母)M(SD)	t값
지원적인 훈육방법	21.62(5.16)	23.42(5.83)	-3.85***
처벌적인 훈육방법	8.95(3.12)	8.50(3.15)	1.65

\*\*\* $p<.001$

〈표 2〉 아동기경험과 부모의 훈육 방법과의 상관계수

아동기 훈육방법	부모 훈육방법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전 체
부(父)					
지원적인 훈육방법		.11	-.13*	-.13*	-.05
처벌적인 훈육방법		-.07	.22**	.22**	.16*
모(母)					
지원적인 훈육방법		.02	-.13*	-.17*	-.11
처벌적인 훈육방법		.10	.17*	.19**	.20**

\* $p < .05$ , \*\*  $p < .01$ 

육방법에는 하위영역인 과잉반응성( $r = -.13, p < .05$ )과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r = -.13, p < .05$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지원적 일수록 아버지는 자녀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처벌적인 훈육경험과 아버지의 자녀훈육방법 사이에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 관계( $r = .16, p < .05$ )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 일수록 아버지는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녀훈육방법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기 처벌적인 훈육경험과 과잉반응성( $r = .22, p < .01$ ) 그리고 상황성 영역( $r = .22, p < .01$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 일수록 아버지는 자녀훈육시 과잉반응적이며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기 훈육경험과 어머니의 자녀훈육 방법과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 지원적인 훈육경험과 어머니의 자녀훈육방법 사이에는 하위영역인 과잉반응성( $r = -.13, p < .05$ )과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r = -.17,$

$p < .05$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지원적 일수록 어머니는 자녀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처벌적인 훈육경험과 어머니의 자녀훈육방법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 $r = .20, p < .01$ )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일 수록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훈육방법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기 처벌적인 훈육경험과 과잉반응성( $r = .17, p < .05$ ) 그리고 상황성 영역( $r = .19, p < .01$ )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 일수록 어머니는 자녀훈육시 과잉반응적이며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 3.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훈육방법

아버지의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3), 지원적인 훈육경험 정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훈육방법에서 하위영역인 과잉반응성( $t = 2.00, p < .05$ )

〈표 3〉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에 따른 현재 자녀훈육방법

훈육방법	지원적인 훈육방법		t값	처벌적인 훈육방법		t값
	下 M(SD)	上 M(SD)		下 M(SD)	上 M(SD)	
방임성	21.94(4.91)	22.24(5.10)	-.453	22.41(4.71)	21.72(5.25)	1.02
과잉반응성	14.32(3.53)	13.39(3.43)	2.00*	13.34(3.08)	14.51(3.83)	-2.51*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16.77(3.68)	15.70(3.17)	2.26*	15.91(3.37)	16.72(3.60)	-1.71
전 체	53.05(7.60)	51.34(7.79)	1.63	51.68(7.30)	52.95(8.08)	-1.22

\* $p < .05$

과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t=2.26,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지원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게 비하여 자녀 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언어표현에 있어 더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 처벌적인 훈육경험 정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 훈육방법의 차이를 보면, 하위영역인 과잉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1, p<.05$ ).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처벌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게 비하여 더 과잉반응적이라는 것이다.

4.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훈육방법

어머니의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부모훈육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4>, 지원적인 훈육경험 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훈육방법은 하위영역인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00, p<.05$ ). 즉 아동기 훈

육경험이 더 지원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 훈육시 언어 표현에 있어 더 간단 명료하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 처벌적인 훈육경험 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훈육방법의 차이를 보면 전체 훈육방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28, p<.05$ ).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일 수록 어머니는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영역인 과잉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11, p<.05$ ). 즉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처벌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여 더 과잉반응적이라는 것이다.

5. 아동기 훈육경험과 부모의 교육정도 차이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부모가 취득한 교육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5>, 아동기

<표 4>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른 현재 자녀훈육방법

훈육방법	지원적인 훈육방법		t값	처벌적인 훈육방법		t값
	下 M(SD)	上 M(SD)		下 M(SD)	上 M(SD)	
방임성	21.81(3.96)	21.43(4.68)	.630	21.28(4.71)	21.99(3.93)	-1.19
과잉반응성	15.73(3.28)	15.00(3.23)	1.64	14.90(3.17)	15.83(3.33)	-2.11*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18.84(3.62)	17.88(3.63)	2.00*	17.87(3.70)	18.80(3.52)	-1.87
전 체	56.38(8.40)	54.31(8.27)	1.82	54.05(8.45)	56.62(8.07)	-2.28*

\* $p<.05$

<표 5> 아동기 훈육방법에 따른 부모 교육정도의 차이

교육정도	지원적인 훈육방법 M(SD)	t값	처벌적인 훈육방법 M(SD)	t값
부(父)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이하 대졸 이상	21.60(5.13) 21.96(5.12)	-4.91	9.18(2.97) 8.72(3.21)	1.05
모(母) 고졸 이하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이상	22.56(5.28) 24.40(5.96)	-2.37*	8.61(3.19) 8.32(3.00)	.698

\* $p<.05$

지원적인 훈육경험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어머니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이상의 교육정도를 가진 경우( $M=24.40$ ,  $SD=5.96$ ) 고졸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진 어머니( $M=22.56$ ,  $SD=5.28$ )보다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지원적이었다고 지각하였다( $t=-2.37$ ,  $p<.05$ ). 한편 처벌적인 훈육경험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훈육경험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지원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 결과의 원인을 자녀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에서 찾아보면, 대체로 부모의 양육방식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통제적이고(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5), 더 많은 훈계와 체벌을 사용하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Block, 1983) 뿐만 아니라 덜 온정적인(정현희, 1990)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아동기 훈육 경험에 대한 지각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더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더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져(문혁준, 1999)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긍정적으로 훈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relsson과 Gelfand (1988)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다루기 힘들고 여아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등의 높은 친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연미희(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남아일 경우 더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간의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태도 사이에서 오는 차이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가

정의 부모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변인, 부모 변인, 상황적 변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문혁준, 1998).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동기 훈육경험이 지원적일수록 자녀 훈육시 덜 과잉반응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자녀훈육방법의 차이에서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지원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덜 과잉반응적이며 자녀 훈육시 언어표현에 있어 더 간단 명료하였다.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이 후에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사용하는 양육방식과 강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Egeland et al., 1987)와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간의 훈육방법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보고(김재은, 1981; 김현주, 1986)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세대간 자녀양육방식의 전이 경로로써 Simons 등(1991, 1993)과 Van Ijzen-doorn(1992)는 동일한 세대간에 일정부분 공유되는 유전자와 물리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역할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부모의 행동과 상호작용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과 처벌적인 훈육경험 사이에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도 아동기 훈육경험이 처벌적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훈육시 과잉반응적이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처벌적이었다고 지각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게 비하여 훈육시 더 과잉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더 비효율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더 과잉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아동기 처벌적인 훈육경험이 비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처벌적인 훈육방법이 적대적인 인성을 가지게 하여 그 결과로써 처벌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게 하며(Simons et al., 1991), 또한 아동기 체벌 경험은 공격적인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고(Patterson, et al, 1989), 그 공격성은 성장 후 자녀 체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준미, 1998; Webster-Stratton, 1985). 아울러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와 그들이 자녀에게 사용하는 처벌적인 훈육방법 간에는 정적관계가 있다고 보고한(Egeland et al, 1987; Straus, 1983) 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이상의 부모의 아동기 훈육경험과 현재 성인이 되어 부모로써 사용하는 자녀훈육방법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변인이 매우 연속적이며 복합적임을 시사해준다.

넷째, 아동기 훈육경험에 따른 부모 교육정도의 차이에서 어머니는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이상의 교육정도를 가진 경우 고졸이하의 교육정도를 가진 어머니보다 아동기 훈육경험이 더 지원적이었다고 지각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기 훈육경험이 지원적일 경우 여아의 교육 성취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그 원인을 단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추후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 내용을 시도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아동기 훈육경험이 성인기 부모로써 사용하는 자녀훈육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여부를 아동기 훈육경험만을 변수로 살펴보았으나, 아동기와 현재 시점간의 발달 경로에 다른 여러 변인이 중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Widom, 1989),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훈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Simons et al, 1992), 아동기 부부싸움 목격 경험 및 정도(Ulbrich & Huber, 1981),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

의 변화과정(Belsky & Vondra, 1993) 등 복합적인 변인들에 의한 부모훈육방법의 전이과정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된 본 연구는 부모들이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동기 훈육경험과 자신의 자녀양육태도를 보고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며(Belsky, 1981; Wills et al, 1974), 아동기 경험에서 회상하고 싶지 않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험은 왜곡에 의해 종종 주관적으로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개 20년 전의 기억을 기초로 한 본 연구는 경험의 많은 부분이 잊혀졌을 수 있으며,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질문지 답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Berkowitz, 1989; Baucom et al, 1989) 매우 구체적인 기억을 요구하는 방임성, 과잉반응성, 언어의 상황적 표현성 등 세부적인 아동기 훈육경험 대신 전반적인 훈육경험 즉 지원적 측면과 처벌적인 측면을 통해 훈육방법의 전이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발달적인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횡단적인 연구방법을 벗어나 종단적인 연구방법 또는 조부모, 부모, 자녀를 포함한 3대에 걸친 심층적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넷째, 기억을 회상하는데 있어 현재의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결과(Blaney, 1986; Isen, 1984)들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우리사회에 경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동일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복연구는 개인의 정서 상태가 회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훈육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아동기 시절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들 변인을 포함시켜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훈육경험을 조

사하는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현재의 조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지원적인 훈육방법과 처벌적인 훈육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동기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과를 감안할 때(허선자, 1992; 전현진·박성연, 1999) 추후연구에서는 부모를 분리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관계를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진 단면적인 발달 특성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애발달적 측면에서 아동기 부모훈육경험과 현재 부모로서 사용하는 자녀훈육방법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훈육방법의 세대간 연결관계가 입증되었으며, 이는 부모훈육방법의 사용에 있어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비부모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부모되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새로운 측면에서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부모훈육방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세대간 전이되는 특성을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아동 및 가족 복지 차원에서 자녀훈육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1) 김재은(1981).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 김현주(1996).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4) \_\_\_\_\_(1999). 아동기의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5) 연미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7), 111-122.
- 6) 장상렬·이종범(1995). 아동기 부모양육에 대한 인식이 성인기 배우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27(7), 1131-1139.
- 7)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8)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5).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11) 허선자(1992). 아버지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4).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13) Amato, P. R. (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11-1019.
- 14) Arnold, D. S., O' 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conduct disordered boys: Who effects whom.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04-609.
- 15)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6) Bandura, A. (1983). Psychological mechanisms of aggression. In R. Geen & E. Donnerstein (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 (pp. 1-40). New York: Academic Press.
- 17) Baucom, D. H., Sayers, S. L., & Duke, A. (1989). Attributional style and attributional patterns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6, 596-607.
- 18)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3-23.
  - 19)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20)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 21) Belsky, J., Youngblade, L., & Pensky, E. (1989). Childrearing history, marital quality, and maternal affec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a low risk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291-304.
  - 22)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u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23) Blaney, P. H. (1986). Affect and Mem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9, 229-246.
  - 24)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25) Capaldi, D. M., & Clark, S. (1998). Prospective family predictors of aggression toward female partners for at-risk young m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175-1188.
  - 26) Capaldi, D. M., & Patterson, G. R. (1991). Relation of parental transitions to boys' adjustment problems: I. A linear hypothesis: II. Mothers at risk for transitions and unskille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89-504.
  - 27) Carroll, J. C. (197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iolence: The long-term effects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 289-299.
  - 28) Caspi, A., Elder, G. H., & Bem, D. J. (1987). Moving against the world: Life course patterns of explo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89-504.
  - 29)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 30) Crowell, J.,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31) Egeland, B., Jacobvitz, D., & Papatola, K. (1987).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abuse. In R. J. Gelles & J. B. Lancaster (eds.), *Child Abuse and Neglect: Biosocial Dimensions* (pp. 255-276). New York: Aldine.
  - 32) Elder, G. H., Liker, J.,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ltes & O. Brim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Orlando, FL: Academic Press.
  - 33) Greta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34) Grossman, F. K., Pollack, W. S., & Koball, E. H.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35) Hart, C. H. (1994).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rategies. *Psychological Reports*, 74, 495-498.
  - 36) Holden, G. W., & Zambarano, R. J. (1992). Passing the rod: Similarities between parents and the young children in orientations toward physical punishment.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 Children* (pp. 143-172). Hillsdale, NJ: Erlbaum.
- 37) Huesmann, L. R., Eron, L., Lefkowitz, M., & Walder, L.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38) Isen, A. M. (1984). Toward understanding the role of affect in cognition. In R. W.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79-236). Hillsdale, NJ: Erlbaum.
- 39) Jorgenson, D. (1985). Transmitting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replication and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males and fema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 109-117.
- 40) Kalmu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28-37.
- 41) Laub, J. H., & Sampson, R. J. (198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 A reanalysis of the Glueck's data. *Criminology*, 26, 355-379.
- 42) Levinson, D. (1989). *Family Violence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bury Park, CA: Sage.
- 43) Lobdell, J., & Perlman, D. (198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oneliness: A study of college female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89-595.
- 44) Lyons-Ruth, K., Connell, D., Grunebaum, M., Botein, M., & Zoll, D. (1984). Maternal family history, maternal caretaking, and infant attachment in multiproblem families. *Journal of Preventive Psychiatry*, 2, 403-425.
- 45)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312-332.
- 46)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C.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 47) O' Leary, K. D., & Curley, A. D. (1986). Assertion and family violence: Correlates of spouse abus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2, 281-289.
- 48) Parker, G. (1981). Parental reports of depressives: An investigation of several explanation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 131-140.
- 49) Patterson, G. R. (1976). The aggressive child: Victim and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E. J. Mash, L. A. Hamerlynck, & L. C. Handy (eds.), *Behavior Modification and Families* (pp. 267-316). New York: Brunner/Mazel.
- 50) Patterson, G. R. (1982). *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 3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Astalia.
- 51) Patterson, G. R., & Capaldi, D. (1991). Antisocial parents: Unskilled and vulnerable.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Family Transitions* (pp. 195-218). Hillsdale, NJ: Erlbaum.
- 52)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53) Phares, V. (1996). *Father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54)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23-836.
- 55)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56)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59-171.
- 57) Steinmetz, S. (1977). The use of force for resolving family conflict: The training ground for

- abuse. *The Family Coordinator*, 26, 19-26.
- 58) Straus, M. A. (1983). Ordinary violence, child abuse, and wife-beating: What do they have in common? In Straus (ed.),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pp. 213-234). Beverly Hills, CA: Sage.
- 59)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Doubleday.
- 60) Telch, C. F., & Lindquist, C. U. (1984). Violent versus nonviolent couples: A comparison of patterns. *Psychotherapy*, 21, 242-248.
- 61) Ulbrich, P., & Huber, J. (1981). Observing parental aggression: Distribution and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623-631.
- 62)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 63) Webster-Stratton, C. (1985). Comparison of abusive and nonabusive families with conduct-disorder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59-69.
- 64) Whitbeck, L. B., Hoyt, D. R., Simons R. L.,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 Huck, S. (1992).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parental rejection and depress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036-1045.
- 65) Whitebeck, L. B., Simons, R. L., & Conger, R. D. (1991). The effects of early family relationships on contemporary relationships and assistance pattern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6, 5330-5537.
- 66) Whiting, B. B., & Whiting, J. W. M. (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67) Widom, C. S. (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44, 160-166.
- 68) Wills, T. A., Weiss, R. I., & Patterson, G. R. (1974). A behavior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02-811.